

'평창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3명 모집...연 2600만원 이상 기간제 채용

👤 퍼블릭타임스 | ⌚ 승인 2026.01.26 00:18

강원특별자치도 근무 전일제...평창군 지역인재 대상 산림치유지도사 공개채용

서류·면접 통해 신입·경력 선발...1·2급 자격 보유자에 자격·경력 우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제공

퍼블릭타임스=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평창 치유의 숲의 안정적 운영과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를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2026년 제1회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사업관리 분야 산림치유지도사 등 직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3명을 선발하며, 채용구분은 신입과 경력 모두 포함된다.

근무형태는 전일제 기간제근로자이며, 보수는 연 2600만원 이상으로 제시됐고, 근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치유의 숲 일원으로 안내됐으며, 직무내용은 산림치유지도사 등 관련 업무 수행이다.

응시자격은 평창군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한이 적용되며, 자격증은 산림치유지도사 1급 또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소지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관련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우대가 주어진다.

전형은 서류 및 면접시험 평가로 진행되며, 응시를 원하는 지원자는 2026년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공단 사무실 방문 접수를 통해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2021년 4월 1일 출범한 지방공기업으로, 평창군의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설립됐으며, 현재 평창자연휴양림, 계방산오토캠핑장, 평창국민여가캠핑장, 대관령휴게소, 평창군 공설 묘원, 광천선굴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전문운영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평창 치유의 숲 운영을 함께할 산림치유지도사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채용공고 출처 : 클린아이 잡플러스 <https://job.cleaneye.go.kr/>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퍼블릭타임스 webmaster@public25.com



퍼블릭타임스